

병자 방문 기도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차례

1. 봉사하기 전에 바치는 기도	7
1) 성령께 바치는 기도	9
2) 병자 방문 기도 예식(천주교 신자)	10
2. 병자를 위해 바치는 기도	15
1) 쾌유를 비는 기도 1	17
2) 쾌유를 비는 기도 2	17
3) 병자를 위한 기도	19
4) 용기가 필요한 병자를 위한 기도	20
5) 수술 전에 바치는 기도	22
6) 선종을 얻기 위한 기도	24
7) 임종을 맞는 신자를 위해	26
8) 임종을 맞는 비신자를 위해	27
3. 병자가 바치는 기도문	29
1)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31
2) 주님 오늘 나의 길에서	32
3) 위탁의 기도 1	33
4) 위탁의 기도 2	34
5) 쾌유를 비는 기도	35

차례

6) 아플 때 드리는 기도 1	36
7) 아플 때 드리는 기도 2	38
8) 용서를 청하는 기도	39
9) 선종을 얻기 위한 기도 1	40
10) 선종을 얻기 위한 기도 2	41
11) 개신교 주 기도문	42
12) 개신교 환자를 위한 기도	43
13) 불자들을 위한 기도 1	45
14) 불자들을 위한 기도 2	47
4. 대세(비상 세례) 주는 방법	51
5. 임종을 돕는 예식	59
6. 성경말씀	65
7. 성가	79

봉사하기 전에 바치는 기도



1. 봉사하기 전에 바치는 기도

주님!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예언적 사명을 살게 하소서.

오늘 만나게 될 아픈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제적 사명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명예를 얻기 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숨겨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며 어리석게 보여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봉사하게 되는

예수님의 왕직 사명을 살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일과

고통 받는 형제들의 아픔 속에서

주님께 향한 믿음을 갖고 그들을

한 형제로 사랑하며

함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저희가 만나는 형제들이
저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저희의 작은 예수이며,
저희 또한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들의 작은 예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님의 참 평화를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하게 하소서. 아멘.

1) 성령께 바치는 기도

오소서 성령님!

저희 안의 긴장을 거룩한 쉼으로 바꾸소서.

저희 안의 소란을 성스러운 고요함으로 바꾸소서.

저희 안의 불안을 조용한 확신으로 바꾸소서.

저희 안의 두려움을 강한 믿음으로 바꾸소서.

저희 안의 쓰라림을 은총의 감미로움으로 바꾸소서.

저희 안의 어둠을 부드러운 빛으로 바꾸소서.

저희 안의 냉담함을 사랑어린 온화함으로 바꾸소서.

저희 안의 밤을 당신 빛으로 바꾸소서.

저희의 빼앗어짐을 곧게 하시고 저희의 공허를 채우소서.

저희 교만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시고

저희 겸손의 날을 갈게 하소서.

저희 사랑의 불을 지펴주시고,

저희 욕망의 불꽃을 꺼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저희를 보시듯,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약속하신대로 당신을 뵈게 하여주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다.” (마태 5, 8)
하신 당신 말씀처럼 행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2) 병자 방문 기도 예식(천주교 신자)

(먼저 ‘봉사하기 전에 바치는 기도’와 ‘성령께 바치는 기도’를
바친 다음 아래 순서를 따른다.)

시작성가

(여러 명이 있는 병실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인사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정화예절

✚ 주님, 저희가 받은 세례성사를 기억하면서 성수를 뿌리
오니,

온갖 부정을 몰아내시고 깨끗하게 돌보아 주소서.
(성수를 뿌린다.)

성경 봉독 (P)

(적당한 성경 구절을 봉독한다.)

청원기도 (P)

(기도서에 준비된 적당한 기도를 바친다.)

주님의 기도

✚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치며
우리 ()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치유 안수 기도

(환자의 머리 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잠시 침묵한 후, 안수
상태에서 아래 기도를 바친다.)

✚ 하느님께서서는 앓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갖가지 은혜로 지켜주시는 아버지시오니,
애원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우의 병을 낫게 하시며 예전의 건강을 도로
찾아주소서.
머지않아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진 이 교우가
거룩한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때
주님의 이름은 더욱 찬미를 받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강복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서는
()와(과) 저희에게 강복하시어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 아멘.

✚ 주님을 찬미합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

병자를 위해 바치는 기도



1) 쾌유를 비는 기도 1

- ✚ 하느님 아버지,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 교우를 돌보시어
인내와 희망을 주시고 복된 치유를 허락하소서.
또한 ()를 치료하고
보살피는 이들의 수고를 강복하시며
사랑하는 교우()가 하루빨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 쾌유를 비는 기도 2

- ✚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하는 교우 ()의 병환이 완쾌되기를 바
라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까지 당신과 더불어 살게 하셨으니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주님, 당신만이 저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건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우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교우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의 고통도 없애주시어

평화와 기쁨을 갖게 하소서.

이 교우가 건강할 때 주님께 충실하지 못했다면

병상의 시간 동안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귀을 가져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다는 다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의 병환을 치료하고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내려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3) 병자를 위한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앓는 사람에게 강복하시고
갖가지 은혜로 지켜주시니
주님께 애원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의 병을 낫게 하시며
건강을 도로 주소서.

●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 아멘.

4) 용기가 필요한 병자를 위한 기도

아버지 하느님!

당신께서는 모든 시대의 위로와 힘이 되셨습니다.

오늘 () 형제(자매)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앞날에 필요한 용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니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곤란한 문제를 초월하여

위를 쳐다보라고 하셨으며,

항상 저희와 같이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저희가 숨 쉬는 것보다 더 가까이

() 형제(자매) 곁에 계시고 보호해 주심을 압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이것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수술 전에 바치는 기도

● 봉사자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 하느님,
오늘 수술을 받는 ()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의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발휘하고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저희의 능력으로 모자라는 것은 주님의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고,
의료진의 손길에 맡겨진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환 자

주님, 저는 당신께 출세를 위하여 건강과 힘을 청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라고 저에게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고통을 주셨
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함을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인이 우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에게 제 삶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청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이들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하는 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당신께 청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이 저게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6) 선종을 얻기 위한 기도

지극히 자비하신 예수 성심이며,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영혼에게 은총을 주시어
 () 형제(자매)의 지향을
 겻세마니 동산에서 고통당하신
 당신의 뜻에 합치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한 당신의 성혈로
 이 가난한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하여 없이 하시고,
 죄로 인한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소서.
 () 형제(자매)의 고통이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 형제(자매)는 늘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도하여 왔나이다.
 “전능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여,
 저의 몸과 영혼을 이제와 영원히 당신께 드리나이다.
 제가 이미 저질러 놓은 모든 죄를 자비로이 용서하소서.
 저 역시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외아드님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늘 믿어왔나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구원할 수 있음을
 저 또한 믿고 있나이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 삼위가 계시으며,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주 예수님, 당신이 저를 구원하실 줄로 굳게 믿사옵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전구하실 줄도 믿사옵니다.
 저의 수호천사와 모든 천사들, 모든 성인들,
 특히 저의 수호성인이시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 예수님, 저에게 영원한 행복을 허락하시어
 천상 고향집에서 무궁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처럼 당신의 위로를 간절히 청하며 살아온
 () 형제(자매)에게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소서.
 아멘.

7) 임종을 맞는 신자를 위해

믿는 이들의 구원이시고 희망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 자녀로서 당신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형제(자매)가 임종에 이르렀으니
그 영혼을 받아 주시고 형제(자매)의 마음을
아버지 당신께로만 향하게 하소서.

이 형제(자매)를 당신의 나라에 불러들이시어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집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당신은 모든 위로의 샘이시니 슬픔에 싸여 있는
이 가정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어
육신의 남은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소서.

우리의 빛과 평화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8) 임종을 맞는 비신자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시며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소서.
더욱이 당신의 고난과
성모님의 전구하심으로 비오니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주소서.
아멘.

● ●

병자가 바치는 기도문



1)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주님, 오늘 제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저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이 영원에서부터
저의 더 큰 선을 위하여 미리 보고
마련하신 것 외에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뿐이오나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을 우러르고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이를 따르며 저희 모든 희생을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희생제물과 합쳐 당신께 바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공로에 의지하며 청하오니
주님이 원하시거나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어려움 중에 참고 견디며 온전히 순종케 하시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의 성화에 보탬이 되게 하소서.
아멘

2) 주님, 오늘 나의 길에서

최민순 신부

주님, 오늘 저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가도록 힘을 주소서.

제가 가는 길에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가게 하소서.

넓은 길, 편한 길, 그런 길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당신과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을 주소서.
아멘.

3) 위탁의 기도 1

샤를르 드 후꼬 신부

하느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보다 큰 선으로
앞으로의 제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4) 위탁의 기도 2

하느님 아버지, 저를 당신께 온전히 위탁하오니
당신의 섭리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당신께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와 모든 피조물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밖의 다른 것은 바라지 않으며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겨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제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제 영혼을 바칩니다.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시기에
온전히 당신께 위탁합니다.
아멘.

5) 쾌유를 비는 기도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주교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 저는 제 존재가 없어지는 듯합니다.
제 입은 당신에 관해 힘차게 외쳐 왔습니다만
지금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이를 향해 당신 이름을 외치기 위해
건강을 되찾고자 합니다.
주님, 저의 힘이시여!
저를 홀로 두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혹 당신께 잘못된 일이 있다면
저는 지금 당신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이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아플 때 드리는 기도 1

데이빗 페이플 신부

저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당신은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당신처럼 저 또한 저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시어
당신과 하나 되어
이 고통을 견디어 나가게 하소서.

당신과 함께 이 고통을
제 허물의 속죄로 봉헌하게 하시어
당신의 은총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가져가게 하소서.
저의 두려움과 걱정들을 가라앉혀 주시고
당신께 대한 크나큰 신뢰가 자리하게 하소서.

이 시련에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기쁘게 받아들임으로써
더욱더 당신을 닮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 뜻이라면
제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영예와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앎의 이들의 나음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7) 아플 때 드리는 기도 2

의사이신 예수님,
저는 이 시간 아픈 몸으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한 지 ()일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아이로의 딸도 고치셨고,
얇은뱃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손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신다면
저 또한 깨끗하게 나오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하여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몸이 아파 누워 있으니 제가 지금까지
당신과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들이 모두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뉘우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8) 용서를 청하는 기도

예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오늘은 저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많은 죄에 물들어도 당신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심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제가 용서해 주어야 할 때는
얼굴이 굳어지곤 합니다.
제가 당신의 용서를 받으려 하면서도
남을 용서하지는 않는다면
당신께 용서를 청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오니 주님,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러진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9) 선종을 얻기 위한 기도 1

오, 예수님!
당신의 마지막 숨을 흡수하오며,
저의 마지막 숨을 당신께서 받아들이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지혜를 자유로이 사용할는지
지금 알지 못하오니,
이제부터 저의 임종의 고통과 모든 괴로움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당신은 저희 구세주이시니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저의 마지막 순간이
당신 죽음의 순간과 일치되기를 원하오며,
제 심장의 고통은 당신을 위한
순결한 사랑의 행위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님,
오늘부터 당신이 원하시는 죽음의 종류와
그 모든 아픔과 번뇌와 임종의 고통을
저는 즐거이 순종하여 당신 손으로부터 받아들이겠나이다.
아멘.

10) 선종을 얻기 위한 기도 2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저에게 선종하는 은혜를 주시어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영원한 천상 행복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11) 개신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2) 개신교 환자를 위한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는 약하고 보잘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에게 역사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의 몸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피사
약한 곳이 없도록 은혜 베풀고 계심을 굳게 믿나이다.
()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주시심을 믿사옵나이다.

집에서 ()의 완쾌를 빌고 있는 가족들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평화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 불자를 위한 기도 1

세상의 고통을 자비로 편안케 하시는 부처님!
 모든 병자들에게 어진 의사의 몸을 보여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감싸주소서.
 병상에 누운 저희가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오며
 병고의 업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진 의사이신 부처님!
 당신께서 제자의 아픈 몸을 씻기셨듯이
 부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하루속히 아픔을 떨치고
 기쁨이 넘치는 몸과 마음으로 소생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부처님!
 생각 생각에 간절히 부처님을 떠올리오니
 의사와 간호사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아픈 자와 더불어 모든 이웃들이
 일체의 질병에서 벗어나 생사의 두려움 없이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14) 불자를 위한 기도 2 (관세음보살께 바치는 기도)

참되게 관(觀)하시고
청정하게 관(觀)하시며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지혜로써 관하시나니.

관세음보살이시여,
거룩한 지혜의 힘이여,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두려움의 계곡을 지나 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고통의 사막을 지나 내가 평온할 수 있도록
무량한 자비시여,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불가사의한 해탈에 드셨으나
기꺼이 윤회의 세계에 몸을 나타내시니
항하사(恒河沙)와도 같이 많은 중생의 아픔과 소원을,
항하사와도 같이 많은 중생보다도
더 애달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사,
그토록 큰 슬픔으로 관(觀)하시나니
천 개의 눈으로 살피시고
천 개의 손으로 구하시나이다.

내가 아직 참회하지 않은 나의 죄를 참회하게 하소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푸른 연꽃과 같이 정결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백양나무와 같이 늠름하고
전단향과 같이 향기롭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염부제 위로 태양이 떠오르듯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이여,
오염 없는 청정한 빛이여.
미망(迷妄)으로 덮인 이 마음의 어둠을 쓸어 버리사
병마(病魔)의 모진 시련으로부터 나를 단련시키시고
깨달음의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모래톱에 의지하듯 내가 다만 당신께 의지하옵니다.

관세음보살이시여,
당신께 이 몸을 바치오니
수많은 삶과 죽음의 강을 건너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 항하사(恒河沙): '갠지스강의 모래'라는 뜻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량을
비유하는 말

대세(비상 세례)
주는 방법



4. 대세(비상 세례) 주는 방법

■ 대세(비상세례)란?

병자가 죽기 전에 받는 세례를 대세(비상세례)라고 한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교회는 위급한 경우는 사제가 아닌 누구라도 세례성사를 베풀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대세란 세례성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간략한 세례식’이라는 뜻이다.

■ 대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건강이 회복되면 정상적인 교리 교육을 받았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3. 그리스도께 귀의하여 미신을 끊어 버린다는 진지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4. 그리스도 신자의 윤리에 위배되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세례 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적어도 기본 교리와 가 능하다면 성체 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한 다음,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준다(어른 입교 예식서 3장).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세례 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 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입교 절차 총지침 16항).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 교육을 실시해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 예식(보례)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282항).

■ 비상 세례(대세) 준비 및 방법

1. 기도상과 십자가상, 초, 맑은 물, 흰색 수건 준비, 세례 명 정하기, 대부모(반드시 15세 이상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수계 범절이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될 만한 신 자라야 한다.)
2. 대세를 주기 전에 의식이 있으면 천주교 4대 교리를 설명한다.

㉠ 천주 존재(天主存在): 하느님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항상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무한한 분이시라는 것.

㉡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이신 하느님은 나눌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포함하여 계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이 도리는 하느님께서 계시로써 가르쳐 주신 것으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

㉢ 강생 구속(降生救贖):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오시어 가르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 상선 벌악(賞善罰惡): 사람에게는 불사불멸의 영혼이 있어 이 세상에서 행한 행실대로 영원한 상을 받거나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

■ 대세 줄 때의 주의

어린 아이나 어른의 이마에 물을 부을 때, 물로 씻음과 경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대세 주는 방법

(병자의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 조건부 대세 주는 방법

(병자의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 대세 주는 이의 마음 준비

대세를 주는 것은 귀중한 성사를 거행하는 행위이므로 확고한 신덕과 정성으로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드린 후 대세를 주도록 한다.

이때 가능한 한 증인 한 두 사람을 세우고 자기가 거행한 대세가 잘 되었는지 확인케 해야 하고, 대세 후에는 관할 성당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대세 보고서 양식

대세 받은 이	성 명	세례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별	남 / 여
			연락처	
보호자 (가족)	성 명	세례명	관 계	
	주 소		연락처	
보호자 (가족)	성 명	세례명	관 계	
	주 소		연락처	
대 세	일 자	년 월 일	장소	

■ 가 족 사 항 ■

관계	성 명	세 려 명	기 타 사 항

대세기 확인 사항	건강 상태	병 명	
	4대교리설명 유 () · 무 ()	믿음의 확인 유 () · 무 ()	
유아의 대세일 경우 부/모의 승인 여부		유 () · 무 ()	
의식불명인 경우 보호자의 승인		유 () · 무 ()	

대세 준 이	성 명	세 려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증 인	성 명		생년월일	
위와 같이 대세를 준 사실이 있어 보고 드립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교구 본당 주임신부님께				

■ 처 리 사 항 ■

세례성사 대장 입력	년 월 일
주임사제 확인	(인)

● ●

임종을 돕는 예식



5. 임종을 돕는 예식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살아 있을 때나 죽음의 순간에서나

저희를 보호하시며 이끄시나이다.

이제 () 를(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 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영원한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함

시편 129(130)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 들으소서.

○ 주님께서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들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들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기도

- ✚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치며
우리 ()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축복

-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서는
()와(과) 저희에게 강복하시어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 아멘.
- ✚ 주님을 찬미합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 경



희망 - 1

마태 7, 7~11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희망 - 2

요한 6, 37~40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희망 - 3

요한 11, 21~26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희망 - 4

2코린 4, 16~18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희망 - 5

로마 8, 22~25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희망 - 7

로마 5, 3~5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희망 - 6

로마 8, 35~39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희망 - 8

시편 91, 14~16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하여 영예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하여 흡족케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리라.

사랑 - 1

마태 5, 3~10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랑 - 2

마태 22, 35~40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사랑 - 3

1요한 4, 16~18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

가 심판 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건디어 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 - 4

1코린 13, 1~7.13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팽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뽀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

화해 - 1

마태 5, 23~26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화해 - 2

이사 55, 6~9

만나 볼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없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럽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화해 - 3

마태 18, 10~14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구하러 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성 가



3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중



1. 우 - 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 영 의 위 로
2. 이 - 세 상 영 화 재 물 모 - 두 다 헛 되
3. 연 - 약 한 우리 모 두 주 - 예수 떠 나



여 내- 마음주께 드려 참 평화 누리 리
 니 오- 롯이주님 안에 살 기만 원하 네
 선 이- 세상거센 풍파 견 딜수없으 리

50. 주님은 나의 목자

(시편 23)

연중

Joseph Gelineau

Fine

보통 빠르기로



주 님 나의 목 자 아 쉬울 것 없 노 라



1. 파 아란 풀 발 에 이 몸 누여 주시 고
2. 내 영혼 싱싱하 게 생 기 돌 아 나 - 고
3. 죽 음의 그 늘 진 골 짜 기 간 다 해 도
4. 내 원수 보는 앞 에 상 을 차 려 주시 고
5. 한 평 생 은 총 이 이 몸 따 르 리 - 니



고 이 쉬 라 물 터 로 주 나 를 이 끌 어 - 주 네
 주 님 영 광 위 하 여 지 림 길 인 도 하 - 시 네
 주 님 함 께 계 시 먼 무 서 울 것 이 없 - 도 다
 주 께 서 내 머 리 에 향 기 림 발 라 주 - 시 네
 오 래 오 래 주 님 궁 그 안 에 사 오 리 - 이 다

54. 주님은 나의 목자

(시편 23)

연중

조금 천천히

구명림



1.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시 니
2.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시 니
3.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시 니



나 는 아 무 것 도 아 쉼 지 않 네
 바 른 지 림 길 로 인 도 하 시 고
 나 의 한 - 평 생 축 복 하 시 고



푸 른 풀 발 시 냇 가 에 쉬 게 하 - 사
 죽 음 의 골 짜 기 를 간 다 해 - 도
 선 하 심 과 자 비 하 신 은 총 으 - 로



나 의 심 - 신 을 새 립 게 하 네
 주 님 계 - 시 니 두 립 지 않 네
 주 님 궁 - 에 서 사 오 리 이 다

59. 주께선 나의 피난처

연중



1. 주께선나의 피 난 처 의지할곳 주님 뿐
2. 내갈길아득 히 멀 고 나의힘기 진한 데



풍파가심할 지 라 도 내게는평화있 네
내분향집을향 하 여 가는길비추소 서



메마른우 리영 혼 에 새생명주옵시 며



주안에영원한 안 식 누리게하옵소 서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연중



1. 기쁨과평 화 넘 치 는 하 느 님 계 신 곳
2. 미 약한우 리 인 - 생 주 님 을 찾 으 니
3. 이 세상모 든 행 - 복 만 족 함 없 으 니



언 제나마 음 속 - 에 그 리며살 리 라
애 토했한우 리 기 - 도 들 어주옵 소 서
참 된행복 의 근 - 원 하 느님뿐 이 리



우 리의 모든 소 - 망 이 이뤄지는그 곳 -



영 원한천 상 행 - 복 누리게하소 서

2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요한 11,25)

연중

힘있게

웨일스 성가



1. 나 는 부 활 이 요 생 명 이 니
2. 나 를 믿 는 자 는 죽 더 라 도
3. 나 는 생 명 이 요 진 리 이 며



목 마 른 사 람 은 내 게 오 라
영 원 한 생 명 을 얻 으 리 라
너 희 가 가 야 할 길 이 로 다



무 거 운 짐 진 자 명 에 벗 겨 주 고
기쁨 이 넘 치 는 아 버 지 집 에서
누 구 나 이 길 을 충 실 히 걸 으 면



영 원 한 생 명 을 내 게 주 리
영 원 한 행 복 을 누 리 라
영 원 한 복 락 을 얻 으 리 라

236. 사랑하올 어머니

성모



1. 사 랑 하 올 어 머 니 여 우 리 위 로 자 시
2. 모 든 근 심 슬 픔 들 이 우 리 괴 롭 힐 때
3. 깊 은 사 랑 크 신 자 비 가 이 없 이 주 시



여 고 귀 하 온 동 정 너 여 우 리
애 기 뽀 이 신 마 리 아 여 우 리
는 어 머 니 와 한 맘 으 로 우 리



보 호 하 소 서
도 와 주 소 서 동 정 성 모 마 리
살 게 하 소 서



아 당 신 사 랑 주 소 서 모 든



근 심 슬 픔 에 서 우 리 구 하옵 소 서

237. 주 예수 어머니

성모

느리지 않게



1. 주 예수 어머니 신 우리 성 모마리
 2. 끝 없 이 은혜 로 운 우리 성 모마리
 3. 주 예수 낳으 신 분 우리 성 모마리

아 주 의 뜻 을 따 른 성 모 찬 미
 아 정 성 어 린 우 리 기 도 전 구
 아 주 님 찾 는 우 리 들 을 인 도

반 으 읊 소 서
 하 여 주 소 서 참 된 사 랑 깊 은
 하 여 주 소 서

검 손 보 여 주 신 성 모 여 세 상

모 든 위 험 에 서 우리 보 호 하 소 서

243. 마리아 모후여

연중

Choral



1. 마 리아 모 후 여 어 지 신 어 머 니
 2. 우 리 는 언 제 나 당 신 을 부 르 며 마 -
 3. 괴 로 울 때 에 나 슬 픔 복 받 칠 때

우 리 를 영 생 에 인
 리 - 아 - 살 베 시 시 각 각 으 로 애
 더 구 나 죽 을 때 네

도 하 읊 소 서
 원 하 나 이 다 마 - 리 - 아 - 살 베
 게 의 탁 하 리

257. 나의 기쁨 마리아여

성모

보통 속도로 예수 수도회

1. 나의 기쁨 성마리아 나의
1. 나의 희망 성마리아 나의
3. 나의 도움 성마리아 나의

어머니시여 슬픔 중의 손을
어머니시여 어둠 중의 길을
어머니시여 평화 중에 머물

잡-아 나를 위로해주소서
밤-혀 나를 이끌어주소서 동정
도-록 나를 축복해주소서

성모마리아 내 삶을 맡겨드리
니를 인도하여주소서

436. 주 날개 밑

연중

느리지 않게 L. D. Sankey

1.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리라 어두운 이 밤에
2. 주 날개 밑 나의 피난 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3. 주 날개 밑 항상 즐거움 있네 생전에 격정다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은 위로 못하나
끝나도록 거기서 주님의 돌보심 받고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거기서 안위와 복언도다 주 날개 밑
평안히 쉬임을 얻으리라

즐겁도다 그 사랑쁨을 자 누노
주 날개 밑 쉬는 내 영혼 영원히 살게 되리라

519. 영원한 안식을

위령

애도의 마음으로 이종철



1. 주 여 그 들 에 게 안 식 을 주-소 서 영
2. 주 여 그 들 에 게 위 로 를 주-소 서 영



원 한 안 식 을 주 소 - 서 영 원
원 한 위 로 를 주 소 - 서 영 원



한 안 식 을 주 소 - 서 영 원
한 위 로 를 주 소 - 서 영 원



한 빛 으 로 비 추 소 서
한 위 로 를 주 읊 소 서

520. 오늘 이 세상 떠난

위령

너무 느리지 않게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 오 늘 이 세 상 떠 난 이 영 혼 보 소 서 주
2. 주 여 이 영 혼 에 게 안 식 을 주 소 서 영
3. 주 께 서 불 러 가 신 이 영 혼 보 소 서 이



님 을 믿 고 살 아 온 그 보 람 주 소 서 주
원 한 안 식 주 시 어 잠 들 게 하 소 서 세
세 상 살 때 주 님 께 애 원 하 였 으 니 주



님 의 품 에 받 아 위 로 해 주 소 서 주
상 의 온 갓 수 고 생 각 해 주 소 서 세
여 그 애 원 들 어 평 안 케 하 소 서 주



님 의 품 에 받 아 위 로 해 주 소 서
상 의 온 갓 수 고 생 각 해 주 소 서
여 그 애 원 들 어 평 안 케 하 소 서

병자 방문 기도

교회인가 | 2016년 11월 1일

발행일 | 2016년 11월 1일

발행처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안기동 35)

054)858-3114~5

